

내 심장은 진동모드

하트 리듬 희망 장려상

백 세 연

“엄마, 나 심장이 진동해.”

내가 부정맥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던 건 12살의 여름이었다.

숨 막힐 듯 더운 찢찢한 여름 하늘 밑, 학교 운동장에서 줄넘기를 하다가,

심장에서 무언가가 ‘톡.’하고 끊어짐을 느꼈고

몇 개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시작으로 갑자기 소나기가 오듯

그 후엔 심장이 진동하다 못해 울렁거리는 느낌과 함께 온 몸이 저러오기 시작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몸뚱아리를 간신히 부여잡고 보건실로 가니

당황한 선생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결국엔 응급차를 호출하셨다.

그때는 전혀 몰랐다. 응급차와의 인연이 이리 오래 갈 줄은 !

응급실에 도착한 후, 땀 범벅인 옷 속으로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기계가 붙여졌고 차가운 이불의 촉감과 병원 특유의 알코올 냄새에 내 얼굴은 경직되었다.

후에 가족들이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심장의 진동 소리가 사그러짐을 느끼고 조금 진정되어진 상태였다.

부모님은 갑작스레 응급차를 타고 온 초등학교생의 딸에게 물음표의 표정을 짓고 있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당황해하셨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당시에 진단을 내리셨을 때는,

(이름이 이상해 기억도 못 하는) 어떤 증후군인 것 같다며 더 큰 병원을 가보심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다.

부모님의 얼굴이 심각해지고 나는 거기서 과거의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아! 심장이 진동하는 게 하나의 병이었구나’를 깨달았다.

사실, 나는 그때 심장이 진동하는 걸 처음 느낀 것은 아니었다.

나는 굉장히 어렸을 때 부터 심장이 가끔씩 진동하는 걸 느꼈었는데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특정 상황 (수영장에 가거나 오래 뛰는 행동 등..)에서는 특히 잘 느껴졌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사람들 모두 운동을 하고 나면 심장이 빨리 뛰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때의 어리고 무지한 나는 이게 사람들 모두 당연히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되었기에 말을
꺼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여차저차, 심장 분야 전문의 큰 병원에 예약을 잡고,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
진료 날이 다가왔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이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예약했던 담당 의사분을 만나 진료를 보게 되었다.
진료를 보기 전에 여러 검사를 했었는데,
런닝 머신을 뛰어서 부정맥을 일부로 유발한 후 고통지수를 확인하려는 검사나
집에서 하루종일 심장에 측정기를 달고 생활하며 부정맥이 확인되는지 보는 검사를 하기도 했
다.
모든 검사과정을 완료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진료를 보며 의사 선생님이 말을 꺼내셨다.
처음으로 내가 들었던 심장의 진동 소리가 '부정맥'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순간이었다.
모두들, 병진 표정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의사 선생님은 무덤덤하게 시술 얘기까지 꺼내셨다.
그런 나에게 그 모든 상황은 공포로 다가올 수 밖에 없었고, 침만 꿀딱꿀딱 넘어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당장은 수술보다는 약을 먹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씀하셨다.
모두들 한시름 놓았고 진료를 받은 후 터덜터덜한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왔다.
시간은 빠르고 잔인하다.
부정맥 진단을 받은 초등학생은 순식간에 중학생이 되었고,
애석하게도 날이 가면 갈수록 심장의 진동 소리는 더 세게 울렸고 그 빈도도 짧아져만 갔다.
결국, 학교에서 몇 번의 응급차가 오고 가고 하면서 수술 얘기가 다시금 나오게 된다.
결국엔 많은 고심 끝에 중재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고, 스멀스멀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내가 받을 수술은 '전극 도자 절제술'로, 2~4시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술이었다.
수술과정은 사타구니 쪽에 국소마취를 해서 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심장에 전기자극을 주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어, 부정맥을 유발한 후 발생 부위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시술이었다.

2~3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있어야 한다고 해서, 시술 전날 밤에 얼마 있지도 않은 짐을 비장하게 꾸린 후 입원준비를 했다.

수술 전에는 금식을 해야 한다고 해서 병원에 들어가기 전날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 밤,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와 함께 첫 시술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병원에 들어가야 하는 날의 해가 뜨고,

비몽사몽 일어난 나와 우리 가족은 서둘러 병원으로 출발한 후, 입원실에 들어갔다.

입원실 침대에 누워서 오후에 예정되어있는 나의 수술시간을 계속 기다렸다.

생각보다 주위 사람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서 신기했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간호사분이 내 이름을 호명하신 후 수술실로 안내해주셨다.

수술실로 들어가려 하는 내 주위에는 나를 문병하러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한 온 식구들이 나를 지켜 보고 있었고 그 모습에 나는 굉장한 이질감을 느끼면서 다가오는 공포를 실감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가족들의 시선을 뒤로한 채 나는 수술실 문 뒤로 유유히 사라졌고

차갑고 어딘가 굉장히 내려앉은 분위기의 수술실 공기가 나를 반겼다.

웁게 누운 수술실의 침대는 매우 차가웠고 나는 수술 전에 움직이지 못하게 벨트로 몸을 고정했다.

그렇게 수술이 시작되고 여러개의 카테터(레이저 관)들이 내 동맥으로 들어가 등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갔다.

나는 수면 마취가 아니라 비수면 시술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 기억과 감정이 정말로 생생하다. 시술 중에도 그 순간의 고통보다 내 동맥에 무엇인가가 들어있고 또한 심장에 도착할 것이고 나는 그걸 모두 느끼고 있다는 그 사실을 버티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억겁의 시간 같았던 시술을 무사히 끝낸 후,

기진맥진한 내 허벅지 위에는 지혈을 위한 무거운 모래주머니 두 개가 올려졌고

지친 나는 입원실로 돌아와 침대에서 쓰러지듯 잠에 들었다.

다음날,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에 대해서 말해주시러 오셨다.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약간 제거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조금의 부분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걸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이 무사히 안전하게 끝났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렇게 나의 길고도 짧았던 부정맥 중재시술이 끝이 났다.

시술 이후, 바뀌어진 점이 있다면

평소 운동을 하거나 갑작스레 어떤 행동을 할 때면, 확실히 시술 전보다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느낌이 나는 것 같다.

심장이 무엇인가 제어되고 있는 느낌이 느껴진다.

그래서 시술이 끝난 이후에, 나는 불안한 마음과 함께

평소 조심해야 하는 탓에 뛰지 못했던 운동장을 한번 시원하게 힘껏 뛰어보았다.

바람이 귀에 녹아들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정적이 정말 기분이 좋았다.

다행히도 시원하게 달린 후에 내 심장은 평범하게 빨리 뛰고 있었다.

땀방울이 기분 좋게 맺혀서 떨어졌다.

개인적으로 부정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에게 중재 시술은 추천하고 싶다.

시술 자체도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닐뿐더러 시간도 짧은 편이기 때문에 한번, 마음먹으면 후딱 끝낼 수 있는 시술인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부정맥에 관한 생각을 말하고 싶다.

이 증상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람들을 알 것이다.

심장이 살려달라는 듯이 소름 돋게 요동치는 느낌을 말이다.

그런데 이런 느낌을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심장이 뛰다.

그들은 심장이 뛰기에 살아있으며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긴 힘들다.

게다가 심장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을 순 있지만, 확실히 와닿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심장이 요동치는 걸 온몸으로 느끼는 우리는 다르다.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나는 심장이 심하게 진동함으로 인하여 정말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고 그것은 기이하기도 하며 또한 소름 돋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다.

소름 돋게 요동치는 내 심장은 내가 여기에 살아있다면 소리치는 것 같았고, 그 외침은 머리에서, 손목에서 귀에서 발에서도 울렁거리듯 울려 퍼졌다.

하나의 질병인 부정맥을 감성적으로 보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나 또한 부정맥으로 인해 굉장히 고생했었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세상 사람들 모두 심장이 뛰고 있고,

우리는 그 속도가 조금 빠르고 길게 가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말이 통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울음을 토해내는 아기를 달래듯

항상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유연하고 태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고를 준비 해두는게 중요하다.

-이상이 어렸을 때부터 부정맥을 겪고 이겨낸 고등학생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부정맥을 앓고 있는 모든 분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힘내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

“부정맥, 같이 이겨 내봐요. 우리-!”

